

◎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2. 만민에게 전도
3. 빈약한 자 구제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8년도 표어 ◎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고후 5:17)

◎ 생활지침 ◎

1. 경건
2. 사랑
3. 절제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새벽을 깨우는 홍해작전 승전의 날까지 4일 남겨

지난 6일에 시작한 '98홍해작전이 오늘 16 일째를 맞으면서 20일 행진의 막바지에 이르렀다.

해마다 6월에 가지는 홍해작전은 개인과 가정, 교회와 민족을 위해 새벽마다 모여 말씀을 듣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작전이다.

대부분의 서울교회 성도들은 홍해작전의 의미를 알고 서로 격려하며 이 작전에 참여하고, 일년 내내 새벽기도회에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홍해작전 때만큼은 새벽기도회에 참여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한다.

현충일인 6일에 시작하여 6·25기념일인 25일에 마치게 되는 홍해작전은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 기도의 폭을 넓히는 기간이 되

기도 한다. 특별히 올해는 국가적인 위기 앞에서 성도들은 더욱 절실한 심정으로 모여 기도하고 있다. 아울러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주제에 따라 말씀을 듣고 교회와 가정과 개인의 문제 그리고 7가지 공동기도제목을 놓고 온 교우가 합심하여 기도하고 있다.

25일(목) 승전의 날까지 나흘이 남았다. 지금까지 참여한 성도들은 더욱 힘을 내고 아직 참석 못했거나 중간에 쉬는 성도들은 다시 새로운 힘으로 함께 승전의 기쁨에 참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자.



'98 홍해작전 기도제목

1.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들 개인과 민족의 모든 허물과 죄를 회개합니다.
2. 주여! 일어나게 하소서
온 백성이 실의와 절망 가운데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기다립니다.
3. 주여! 새롭게 하소서
분열된 교회와 분단된 조국이 창조주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기다립니다.
4. 주여! 인도하소서
우리들, 여러식은 백성들이 선한 목자가 되시는 주님의 인도를 기다립니다.
5. 주여! 동행하소서
우리 가정과 직장 그리고 기업의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6. 주여! 속히 이루소서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서울교회가 하나님의 천을 건축하고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비전을 이루기 원합니다.
7. 주여! 감사합니다
서울교회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더 많은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옵소서.



시민대학

“소점포 창업과정 세미나” 성황리 개강

우리 교회 부설 서울시민대학의 “소자본점포 창업과정세미나”가 18일(목) 성황리에 개강했다. 약 120여 명의 수강생이 몰린 이날 입학식을 겸한 개강예배에서는 학장 이종윤 목사의 “우리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제하의 설교와 경과보고, 조남호 서초구청장의 축사, 입학자 선서 등이 있었다. 이어 특강 (최대의 유산 / 최규철 박사), 창업원칙 · 점포선정방법 · 업종선택요령(김재술 소장), 성공하는 음식점사(고승태 사



장), 현대인의 스트레스관리(이운진 박사) 등의 강의를 진행했다.

소자본점포 창업과정세미나는 7월 9일(목)까지 매주 목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다.

무지개회 정기 총회 회장 임경희 권사

우리 교회 장로 부인들의 모임인 무지개회는 6월 초 정기총회를 갖고 새 임원진을 선출했다.

새로 선출된 임원진은 회장 임경희 권사,

총무 이영희 집사, 서기 우선자 권사, 회계 박태희 집사 등이다.

무지개회는 대내외의 구제 및 봉사 활동 등 교회 안팎의 일에 보이지 않게 수고하며 월 1회 정기 모임을 갖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현재 무지개회 회원은 고문인 홍순복 사모를 비롯 모두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사야 강해

그날에는 강해

이사야 7장 18-25절

아하스 왕은 북 이스라엘과 아람이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대를 공격해 온다는 말을 들었을 때 큰 두려움에 몸을 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두려워 말라”고 말씀하시며 이 각박한 상황에 선지자를 통하여 메시아 예언을 하셨습니다.

선지자는 계속 말씀하기를 이 정조가 나타나기 전에 아하스 왕이 징벌을 받을 것이며 징벌을 받을 대상은 너와 네 백성과 네 아버지의 집, 곧 자자손손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종종 하나님의 백성이 범죄를 하면 불신자를 통해서 매를 때리십니다.

본문에는 ‘그 날에는’이라는 말이 네 번이 나오는데(18, 20, 21 23절) 그 날은 아하스 왕이 수치를 당하는 날을 말합니다. 아하스는 앗수르와 애굽이 유대를 도울 나라인 것으로 생각했습니다만 실제로 애굽은 요시아 왕 때에 유대를 침공했고(왕하 23:29) 앗수르는 히스기야 왕 때에 유대를 침공했습니다(사 36, 37장).

그 날이란 한 사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멸절시키시려고 작정한 그 기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바는 순종입니다. 만일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려고 한다면 이것은 헛수고가 될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대적한 것은 아닙니다. 그는 단지 아무 것도 구하지 않았다고 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순종하지 아니할 때 분노를 발하십니다.

그러면 그 날에, 즉 하나님이 몽둥이를 드시는 날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 파리떼와 벌떼를 부르신다

파리떼는 애굽 군대를, 벌떼는 앗시리아 군대를 의미합니다. 벌은 잔인하고 위협스러운 벌레이며 파리는 사람을 몹시 귀찮게 하는 벌레입니다. 앗시리아 군대와 애굽 군대는 유대를 잔인하게 공격을 할 터인데 거친 꿀짜기와 바위들,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파리떼와 벌떼들이 앉는다고 했으니 유대 땅이 이들에게 완전히 점령당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면 도

와줄 것으로 여기던 사람이 몽둥이와 가시가 되어서 그것으로 인하여 찢람을 받고 밟아서 넘어지게 됩니다.

2. 삭도로 몸의 털을 모두 미신다

세내어 온 삭도, 곧 빌려온 연장은 빠른 시일 동안 사용하고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이

포도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황폐하여 절레나무와 가시나무로 가득차 있게 된다고 했으니 그 비싼 포도나무는 간데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광야에 덮인 것은 절레와 가시뿐이요 다니는 것은 짐승뿐이니 그 땅은 저주를 받은 땅이 되고 말았습니다. 세내어 온 삭도, 곧 빌려온 연장은 빠른 시일 동안 사용하고 돌려줘야 할 것입니다. 이

유대의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임재하심 곳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애굽 하수에서 먼 지경의 파리와 앗수르 땅의 벌을 부르시리니 다 와서 거친 꿀짜기와 바위들과 가시나무 울타리와 모든 초장에 앉으리라 그날에는 주께서 하수 저편에서 세내어 온 삭도 곧 앗수르 왕으로 내 백성의 머리털과 발털을 미실 것이요 수염도 깎으시리라 그날에는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리니 그대는 것이 없으므로 뼈대를 먹을 것이라 무릇 그 땅 가운데 남아 있는 자는 뼈대와 풀을 먹고리라 그날에는 천주에 온 일천 개의 가지 되는 포도나무 있던 곳마다 절레와 형극이 날 것이라 온 땅에 절레와 형극이 있으므로 살과 활을 가지고 그리로 갈 것이요 보습으로 갈던 산에도 절레와 형극 까닭에 두려워서 그리로 가지 못할 것이요 그 땅은 소를 놓으며 양의 밍는 곳이 되리라”(사 7:18-25)



이종윤 목사

와 같이 하나님은 기다리시지 않고 삭도로 털을 깎아버리시고 밟은 흔적뿐이고 성한 곳이 없을 만큼 정계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완전히 망한다는 말입니다. 강을 건너다는 말은 방해물을 넘어온다는 말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사람은 만질이나 방해물과 상관없이 기어코 망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사람은 모든 조건과 상관없이 이렇게 멸하실 것입니다.

3. 젊은이가 포로로 끌려가게 된다

그 날에는 청년들이 모두 포로로 끌려가서 농사 지을 사람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짐승들이 사람보다 많아져서 한 사람이 한 어린 암소와 두 양을 기르게 된다고 했고 남아 있는 사람들이 뼈대와 풀을 먹고도 남게 된다고 했습니다.

농사를 지을만한 젊은이들은 모두 잡혀가므로 그 땅에 살 사람이 없게 되어 짐승의 숫자가 사람의 숫자보다 많게 된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결코 부(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비통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4. 땅은 황폐하게 된다

은 일천 개를 주고 사야 될 만큼 포도나무 천 그루가 있는 곳이면 대단히 좋은 과수원입니다. 그런데 그 과수원에 좋은 열매를 맺는

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던 그 땅이 절레와 형극으로 차였으니 이제 유대는 저주의 땅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저주를 받으니까 자연까지도 저주를 받습니다. 유대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종이 선언한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시는 일을 할 때는 불순종이 될 뿐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하는 것은 사울이나 아하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한 아하스는 자신만 망한 것이 아니라 민족 전체와 후손과 자연까지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의 역사적 사건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고 오는 세대에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하는 사람들이 받을 저주에 대해서 증거한 책입니다.

본 강의 말씀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면서 순종의 제물이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 군에서 온 편지

감격 속에 드린 병영의 첫 예배

이대중 (중등부 교사)

사랑하는 부모님께

이곳에 온지 한 달만에 처음으로 인사드립니다. 그 동안 너무 많은 변화가 있어 무엇부터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첫 3주 동안은 민간인에서 군인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힘든 기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지금은 익숙해졌습니다. 세상엔 군인과 민간인이라는 두 가지 종류의 사람만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생활과 사고의 변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먼저 군인이 된다는 단순한 사실을 인식한 후로는 적응이 그리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특히 이곳은 기상과 취침, 식사와 학과 등 모든 것이 규칙적이어서 절제있는 생활이 가

능했습니다. 회사 다니면서 몸이 약해져 있었다는 것을 여기 와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8km 구보, 팔굽혀펴기 50회 등 입대 전에는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1달만에 당당히 해내고 있습니다. 한계라는 것은 생각이 만들어 낸 것이지 자신의 한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번 새로운 훈련을 할 때마다 자신감과 강함, 믿음 등이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나 첫 3주간의 훈련 기간 중 가장 어려웠던 것은 영적인 생활 문제였습니다. 일체의 개인 생활이 제한을 받았는데 그중에는 편지 보내기와 교회 출석, 성경 소지까지 포함됐습니다. 삶을 지탱하는 데 주님이 얼마나 크게 자리하셨는지 새롭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일

주일에 한번 가는 교회라고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쳐 버린 시간들의 실은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었는지 무척 후회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다면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도 없었을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오늘 한달만에 처음으로 영내 교회에 출석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너무 감격스러워 쏟아지는 눈물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있는 곳이면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겨낼 수 있다는 신념이 생겼습니다. 더욱이 가족, 식사, 아름다운 자연, 미래의 목표 등 그동안 간파했던 모든 것이 감사하기만 했습니다.

여기서 특별히 부탁할 것은 없지만 한 가지 목사님의 주일 설교말씀을 적어 보내 주셨으면 합니다. 이것이 저에게는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도드리며, 안녕히 계십시오. 강한 아들 이대중 올림

■ 신혼일기

달라진 것

이종혁(제7교구)

"여보"라는 그 흔한 말을 이날까지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는 못했지만 기혼자가 된 지 두 주가 지났다.

6월 4일 결혼식 직전 이른바 신랑 위치에 서서 인사를 했다. 서울교회 출석한 지 4년이 되었지만 모르는 성도님들이 많았다. 그동안 얼마나 교제를 소홀히 했었던가...

예식을 마치고는 사진을 찍히고 오신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여행을 떠났다.

신혼여행이라는 것이 약탈혼의 잔재라는 설을 어디선가 들은 기억이 나긴 했지만 사진 교 육시간에 이종용 목사님이 강조하신 것이 더 정설인 것 같았다. 조용히 방해받지 않고 앞으로 함께 살아가기 위해 인생계획을 같이 세우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당부하신 것이 가정 예배였다. 개인적으로 가정 예배를 드린 지 십수년이 지났다는 생각을 떠올렸다. 교향집을 떠나 서울에 온 후 상당한 시간을 혼자 살아오면서 가정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는 입장이 못되었기 때문만은 아니었다. 그동안 거주한 집이 몸과 마음이 쉬는 단순한 생활 공간에 불과했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가정은 또한 교회의 최소 단위가 기도 할 것이니 이제 가족을 이룬 마당에 목사님이 당부하신 가정예배는 꼭 드려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목사님께 약속을 드렸다.

첫 일주일간은 쉬었다. 남들이 늙은 신랑, 신부가 무슨 1주일씩이나고 하든 말든 신혼여행 기간은 사실 짧았다. 짧은 기간이어선지 예물로 주고 받은 성경책을 앞에 두고 같이 기도하고 찬송하고 말씀을 읽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니었다. 단지 한자가 섞인 성경이라는 점만 빼면 말이다.

그 다음 일주일도 그러저럭 지났다. 줄리는데 하던 먼저 성경책으로 손을 내밀 정도로 조건 반사가 되어 버린 덕에 예배를 건너 뛰지 않을 수 있었다. 욕기에 나타난 풍부하고 아름다운 표현들도 우리를 말씀으로 이끌기에 충분했다. 혹 신명기에 가면 어떻게 하는 두려움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그건 그때 가서 걱정사로 했다. 3주째 접어들었지만 앞으로도 주님이 같이 하실 것을 믿고 전의를 불사르고 있다.

기혼자가 되서 얻은 가장 큰 잇점으로 아침 밥을 제대로 챙겨 먹는 것보다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얻게 됐다는 것을 들고 싶다. 가정 예배를 드리다 보니 도대체 인간적인 재능이 없음에도 주님이 채워 주실 줄 믿고, 가족 두 사람 중 한 사람이 수고하는 임마누엘찬양대에도 감히 끼었다. 대신 열심히 보던 TV 시청시간은 눈에 띄게 줄었다. 또 쓸데 없이 바깥에서 보내던 시간도 역시 거의 없었다.

아직 주위에서 도와 주시고 격려해 주신 분들께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지만 우선 어긋나지 않는 신앙의 가정이 되어 그분들의 기대에 부응하고자 한다. 다른 인간적인 인사에 앞서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 보여 드리는 것이 가장 큰 답례일 것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 대학부 특강 중에서 ■

참된 섬김이란?

지금 여기부터, 작은 것부터...

우리는 참된 섬김과 거짓된 섬김을 구별해야 합니다. 참된 섬김에는 몇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첫째 진정한 섬김은 감정에 의해 좌우되지 않으며 보상이나 대가를 기대하지 않고 언제나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둘째 진정한 섬김은 결과나 숫자에만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동기와 수단도 중요시합니다.

셋째 진정한 섬김은 대상을 내가 골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이웃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넷째 섬김은 지금부터, 여기부터, 나부터,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는 것입니다.

섬김은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아주 작은 것부터 찾아 최선을 다해 섬김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정리: 이승헌 기자)

이 글은 5월 30일 대학·청년부 연합집회 시 최일도 목사의 강연을 요약한 것입니다.

단신

6월 학습·세례식

24일(수) I·II부 예배 시

6월 학습·세례식이 24일(수) I·II부 예배 시 거행된다.

학습·세례를 받는 성도 중 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는 22일(월) 오후 7시 4층 예배실에서 실시하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학습·세례차 문답은 23일(화) 오후 7시 4층 예배실에서 있다.

학습·세례자는 반드시 교육에 참가해야만 문답과 학습·세례식에 참여할 수 있다.

문의는 새가족주로 하면 된다.

엘리베이터 운행 변경

오늘부터 지하층 운행 없기로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의 운행이 오늘부터 변경된다. 지금까지는 지하층부터 4층까지 매 층에 운행되었으나 보안 관계상 지하층

운행을 중단케 된 것이다.

엘리베이터가 1층에서 4층까지 운행되는 중 엘리베이터 문의 '닫힘' 단추는 작동되지 않으며, 탑승 후 일정시간이 지나면 문이 자동으로 닫히도록 조작됐다.

관리위원회에서는 엘리베이터 사용에 대해 조금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는 습관을 가질 것과 노약자들에게 양보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계단을 사용할 것을 권유하고 있다.

서초구청 신우회 내교

24일(수) II부 예배 시 특송

서초구청 신우회 회원 30여명이 6월 24일(수) 우리 교회를 방문, 수요일부 예배에 참석하여 특송을 갖는다.

이들은 40만 서초구민을 위해 수고하는 한편 구청 내에 신우회를 조직하여 매주 배를 드리는 등 구청 내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있다.

순례자 컬럼

애통하는 자

사람들이 추구하고 바라는 것은 좋은 시간이고, 행복이지 배개를 적시도록 울어야 하는 것들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게 된다고 가르치신다.

이 말씀은 그리스도인은 항상 시무룩해 지거나 또는 눈물만 짜는 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은 물론 아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를 깨닫기 시작한 애통을 의미하는 것이다. 우리는 먼저 자신의 죄 때문에 애통

해야 하고 또한 애통하는 자가 적은 것도 슬퍼해야 한다. 이처럼 통회하는 자에게는 위로가 있다고 하셨다.

여기서 위로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말한다.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를 해결 받지 못한 자는 진정한 위로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으니 그 앞에 내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면 주님은 우리의 무거운 죄와 사망의 문제를 풀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것이다.

동정

◇ 이종운 목사는 23일(화) 서울 강남노회 사이버이단대책위원회를 소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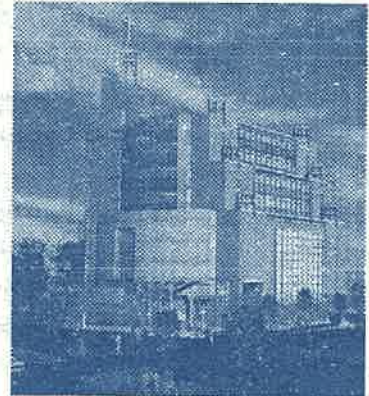
◇ 구홍 성도(1교구 논현 3다락방)는 18일(목) 서초구 내곡동에 '삼정실업'을 개업했다. ☎ 3411-5896

◇오늘 점심식사는 김태기 장로·윤문자 권사 가정에서 제공했다.

새 예배당 소식

새 예배당 설계완성

일곱촛대를 십자가탑으로 형상화



지난 주일 새 예배당 설계에 관한 설명회가 있었다.

외부 모습 중 가장 특징적인 것은 계시록의 일곱교회를 상징하는 일곱촛대를 형상화하여 일곱개의 십자가탑을 세우도록 설계된 것이다. 또 십자가의 불빛은 밤에도 빛을 발하도록 했다. 외벽의 재질은 돌과 유리 등의 마감재 대신 벽돌과 노출 콘크리트 등으로 마감기로 확정됐다.

건축위원회한 관계자는 새 예배당의 완성된 설계에 대해 "21세기 도시교회의 모델로서 손색이 없도록 하기 위해 여러 차례 수정 작업을 하는 등 심혈을 기울였다"고 밝혔다.

내부 설계는 '열린 공간'으로서의 개념을 도입, 다양한 용도로 폭넓게 활용할 수 있도록 효율성을 높여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로서의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 이종운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837K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X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 30분
아세아방송(HLAZ 1566KHz)	「라디오 감동」	주일 오전 8시 30분 - 9시
	「새벽의 감동」	금요일 오전 4시 20분 - 4시 5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흥해작전을 통해 진리 안에서 거룩해 질 수 있도록
2. 성숙한 천국시민의 삶을 살 수 있도록
3. 서울시민대학을 통해 그리스도의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 30분

■ 교회위치

